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주님이 주시는 자유

(요 8:31-36)

이종윤 원로목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며, 정치를 잘해서 정치적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는 무엇입니까?

#### 1. 죄로 인한 구속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요 8:34).

주님께서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 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눅 4:18). 경제적인 구속이나 정치적인 구속은 비참한 것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구속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여기므로 인하여 오는 구속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까지도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주님께서는 근원적으로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 2. 자유 추구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모든 예견적인 자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까닭에 오는 죄의 구속에서의 자유를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자유 운동과 더불어 죄로부터의 자유 운동이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 의가 있는 자유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 운동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유를 성취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세계사의 이정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자유를 빼놓으면 그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또다시 구속되는 것을 인간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 3. 참 자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

주님께서서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31-32). 자유의 역설적인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과거에 있던 것이든 현재에 있는 것이든 구속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를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벗어나므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나를 괴롭히고 구속합니까! 하나님은 없습시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유화 운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무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구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멋있고도 의미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주의 말에 거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구속과도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멋있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갈 5:13). 멋대로 자유롭게 살지 않고, 방종하지 않으며 주의 계명에 따라서 종 노릇 하듯 자신을 훈육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곧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죄의 구속함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자는 미쁘게 여기시어 사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전정한 자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훈육을 통하여 멋있는 자유를 향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진정한 자유가 앞서가고 더불어 있어야 할 자유를 위하여 힘 있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 성숙한 인격과 리더십

(창 45:1-15)

리더십 혹은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변이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전무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는 리더의 자리에는 있으나 리더십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공동체가 원하는 목표를 근접하게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운동 경기에서의 코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코치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지시해서 선수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멘토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도력의 근본은 감동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볼 때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정치나 행정에 탁월한 식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풍부한 경험이나 정치적 동지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요셉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극복하는 것으로 당시의 흉년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륙의 문제였는데 결국 요셉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며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한 리더로 성공한 요셉의 인격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1) 신뢰성

리더십 혹은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변이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전무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는 리더의 자리에는 있으나 리더십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공동체가 원하는 목표를 근접하게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운동 경기에서의 코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코치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지시해서 선수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멘토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도력의 근본은 감동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볼 때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정치나 행정에 탁월한 식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풍부한 경험이나 정치적 동지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요셉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극복하는 것으로 당시의 흉년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륙의 문제였는데 결국 요셉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며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한 리더로 성공한 요셉의 인격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손달익 담임목사

요셉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믿음이 가도록 하려면 먼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사역을 부여 받을 때 한 달란트 받았다고 물어두지 말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절의 노력을 하여 자기 성장을 이루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성실할 뿐 아니라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 2) 성실함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도 일을 매우 잘했습니다. 소년 노예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의 살림이 점점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노예였을 때 밤잠을 자지 않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생하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윤리성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바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

리가 정직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자기 청결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 4) 포용력

애굽에 온 형들이 용서를 빌 때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들에게 한 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진 요셉의 인격에 감동되고 매료되었던 사람들이 저절로 그의 지지자들이 되고, 협력자들이 되고, 추종자들이 되면서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대 제국의 총리직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인격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창 41:38). 요셉은 이방에서 80년이란 긴 세월을 살면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으로 인하여 요셉의 품성한 인격이 형성되었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속사람의 무르익은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의 능력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처는 성령 충만함이라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

- 1월 한 달간, 찬양예배 시 -

2022년 1월 한 달간 찬양예배 시간에 리더십 훈련을 실시한다.

서울교회는 2021년에 하나님 은혜로 수년간의 분쟁을 완전히 끝내고 회복되었고, 이제 2022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 출발(RESTART)한다. 많은 부서의 섬김의 일꾼들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서울교회의 재건과 부흥의 파도에 올라탈 효과적이고 선한 리더십 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하여 1월 한 달간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크리스찬 리더십' 훈련을 진행한다.

강사진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월 9일(주)  
임성빈 목사  
(장신대 전 총장)

주제 :  
뉴노멀 시대의 도전과 과제



1월 16일(주)  
공진수 목사  
(목양교회)

주제 :  
상당 관점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1월 23일(주)  
김성중 목사  
(장신대)

주제 :  
희망을 일구는 교육적 리더십

# 천국시민 양성을 위하여 소요리문답반을 개강합니다



박광식 집사  
(소요리문답부 부장)

소요리문답은 영국의 웨 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 된 것으로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대한 성경의 핵심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요리문답반을 비대면 영상강의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공부한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자 합니다. 소요리문답 107개 항목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지난해 강의를 통해서만 접한 내용을 대화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소요리문답은 기독교 조직신학 12개 주제 가운데 절반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올해는 나머지 주제들도 정리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소요리문답반은 1월 방학 중 신청자를 접

수하여, 2월 첫 주부터 개강합니다. 올해 소요리문답반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자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카톡방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소요리문답반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 : 심우진 목사 (소요리문답부 담임교역자)  
010-2307-4391

· 박광식 집사 (소요리문답부 부장)  
010-9770-7673



## 신앙강좌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동진 집사  
(신앙강좌부 부장)

신앙강좌부가 개강합니다. 주제와 강사, 강의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주제 : 신앙과 신조
- 시간 : 주일 12:30-1:30  
(1월 16일-12월 11일)
- 장소 : 601호

(비대면 시- 동영상 강의)

· 담당: 양정호 목사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교회사 및 역사신학 전공)

· 강의 개요 : 신앙과 신조 그리고 교리의 내용과 중요성을 역사와 전통이라는 관점에

서 살펴보고 시대마다 고백문 형식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아낸 신조가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이단적 교리를 배격하려고 했던 교회의 중요한 유산이라는 점과 기독교 역사에서 신조와 교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시대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리가 발전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21세기 한국 장로교회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교리를 신앙고백문의 형식으로 담아낸 신조들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

- 주요 내용:  
신앙과 신조와 교리란 무엇인가?,

사도신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제네바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초기 한국교회 12신조,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앙고백서 등

· 강의 신청 :

김동진 집사(신앙강좌부 부장: 010-5308-1974)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 신청하신 분들은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 노트와 강의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유치부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한대석 집사  
(유치부 부장)

2022년 유치부 부장으로 섬기게 된 한대석 집사입니다. 2022년 새해 모든 서울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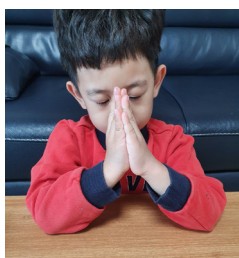
2022년 유치부에 함께 할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난 18년간 교회학교 여러 부서들을

섬기면서, 지금의 아이들에게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들을 잘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용감한 용사들의 이야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주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학교 일선

에는 학생만큼이나 선생님들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웃고 울어 줄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또한 교회학교에도 각종 행정을 담당할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너무 두려워 마시고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롭게 변화하는 청년부



김신영 성도  
(2022년  
청년부 회장)

할렐루야! 새로운 2022년과 새로운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청년부는 기존의 청년 1부와 청년 2부로 나누어 있던 것이 통합된 첫 청년부입니다. 청년 1부의 에너지와 청년 2부의 지혜가 합쳐져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청년부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하나 되고자 합니다. 1월에 기획되고 있는 리더 세미나를 통해 청년부 리더십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쓰임 받아야 하는지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청년부원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더불어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육 모임을 통해 매 주의 팀 모임이 더욱 풍성해질지 기도합니다.

또한 통합된 청년부원들 사이의 교류를 돕기 위하여 소그룹을 조직하였습니다. 기존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팀 모임을 넘어 취미와 관심에 따라 운영되는 소그룹들을 통해, 공동체 내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지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소그룹들이 성장하여 각 소그룹 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자리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기 위하여 청년부 SNS를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알리기 위하여 청년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뿌리는 것은 아직 작은 씨앗이지만,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청년부는 학업으로, 군복무로, 취업 준비로, 회사 생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청년들이 기꺼이 나아와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청년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이 뛰어노는 그 입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시 119:47)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의 새로운 비전과 모습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부와 함께하고 싶은, 그러나 그동안은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첫 발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1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청년 1부 야외 모임



2022 임원단과 함께  
의원종 성도(총무), 정아영 성도(서기)

## Vision2020에서 Vision2030으로

### - 군 선교 사역의 새로운 vision과 함께 -

“Vision2020” 사역을 주관하던 '군선교연합회본부'에서 2020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서울교회도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Vision2020 실천운동” 사역의 명칭을 새로운 군 선교 비전과 함께 “Vision2030 실천운동”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동안 펼쳐 온 “Vision2020 실천운동”은 매년 군에 입대하는 30만 명의 장병 중 25만 명(기존 신자 3만여 명 포함)에게 복음을 전해 2020년까지 2,500만여 명의 크리스천을 길러낸다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25만여

명이 군 복무를 마친 후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이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된다는 가정 아래 이 같은 Vision을 세웠고, 지금까지 실천해 왔으며, 실제로 1999년부터 매년 20년간 평균 18만 명이 진중 세례를 받은 것은 민족 복음화의 큰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명칭 변경과 함께 펼쳐질 “Vision2030 실천운동”은 매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이뤄지는 신규 세례자 6만 명과 기존 세례자 4만 명을 군인교회가 양육해 10년간 100만 명의 청년을 한국교회로 파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교회는 현 코로나 팬데

믹 상황 속에서 외부인의 접촉을 금지하는 군 당국의 방침에 따라 직접 진중 세례식에는 참여할 수는 없지만, 계속 4명의 군 선교사를 파송해 후원하고 있고 대대급 교회에 간식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부대 내 진중 세례식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 후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 입대한 서울교회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도교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Vision2030”, 군 선교 사역에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

## - 성탄절 헌금을 나누며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 출발(RESTART)하는 선상에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드린 성탄 예물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자 강남구청에 복지와 관련하여 자문을 얻고 강남 복지 재단에서 선별해 준 시설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랑의 전달자로 권사회(박미혜, 장호림, 최종희, 박종숙, 김미성, 함정희, 박수옥)와 스테반회(백도환, 홍창훈, 김승록, 정승균)에서 시설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데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설명과 같은 시설과 기관, 교회에 후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미혼모, 버려진 아이들, 장애인, 가정 폭력 아동(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시설.

\*저소득 초등, 중·고등학생들의 돌봄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관리와

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및 한 부모 가정들의 한국 생활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 발달 지원 및 생활 지원등의 활동을 돕는 기관.

\*성폭력피해여성쉼터로 약 10여 명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머물며 사회 복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시설.

\*발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

\*강남구 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 활동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며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

\*강남구 내 가장 작은 보호 작업장으로 자폐장애인들이 쿠키류 등을 생산하는 시설.

\*노인복지관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관.

\*후원으로만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교회의 교사 교육 및 교회 현장 전도를 통해 교회 부흥과 성장을 돕는 기관.

\*모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별 없

는 나눔 활동을 하는 국제NGO.

\*51사단 167연대 철마교회서 자비량 군 선교하신 ‘맨 발의 복음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명진 목사님. 사역 중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쳐서 병원비 마련이 막막한 상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대표(15곳을 20만원씩 지원).

\*노숙자, 교도소, 사회적 약자,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는 다함교회.

방문한 시설에서 한결같이 들었던 말씀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온정의 손길이 끊겨 정말 힘들었는데, 서울교회에서 후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시대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불어 나누며 섬기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고등부 교사 모집

2022년 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실 성도들을 모집한다.

입시와 학업에 찌든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꿈을 심어 주는 보람찬 고등부 교회학교 봉사에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린다.

- 모집 인원 : 3명
- 봉사 시간 : 주일 오전 8시 20분 - 10시 50분 (101호 웨민홀)
- 연락처 : 한상욱 집사(고등부 부장)  
010-8007-1506  
김예지 전도사(고등부담당)  
010-2365-7664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소준 백승규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옥준웅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 2022 성경암송대회

2022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일시 : 11.12(토) 일반부 본선  
11.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주차 안내

교회의 정상화 및 방역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예배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차 원칙
  - 장기(종일)주차 : 지상 1층, 지하 3층 (대상 : 직원, 교역자, 종일 봉사자)
  - 예배 시 주차(각 예배시간) : 지하 1, 2층 (찬양예배 제외)
  - \* 지하 1, 2층 2열 주차 앞 열 차량은 예배 후 반드시 출차(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2. 주차 방법
  - ① 안쪽부터 주차하기
  - ② 건물 기둥 중심으로 백미러가 닿을 듯 주차하기.
  - ③ 주차라인 중앙에 주차하기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 성경통독자 추가

1독 : 3교구 박혜정3

### 동정

- 떡 제공 : 손태현 집사·박혜옥 권사 가정 박미정 권사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10일	월	창 1-3		창 1-7	
1월11일	화	창 4-7		창 8-13	
1월12일	수	창 8-10		창 14-19	
1월13일	목	창 11-14		창 20-24	
1월14일	금	창 15-18		창 25-30	
1월15일	토	창 19-20		창 31-35	
1월16일	주일	창 21-23		창 36-41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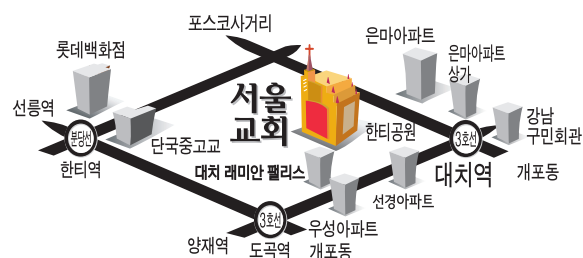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행일치의 삶에 성공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2. 다시 출발(RESTART)하는 서울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3.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활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